

# 전주 원도심 활력 찾기 주민이 나서

### ‘마을계획추진단 성과보고회’ 개최... 노송동·진북동, 계획 확정, 완산동·인후2동 계획 실행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노송동 주민들이 이웃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 대문 문턱을 낮추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북동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마련된 공유공간에서 민찬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 나눠먹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8일 중화산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노송동과 진북동, 완산동, 인후 2동 등 전주시 원도심 4개동 마을계획추진단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 마을계획추진단 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주거지 쇠퇴 등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공동체 의식 향상, 주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올 한해 마을계획을 수립해온 노송동과 진북동 주민들의 사업계획 공유와 수립 과정에서 겪었던 소감을 청취하고, 지난 1년간 마을계획을 실행한 완산동과 인후2동 주민들의 달성한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참석한 4개 동 주민들은 또 마을계획 소감나무 점등식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주도 마을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결의를 다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사마을로 잘 알려진 노송동 주민들은 원도심 공동화로 침체에 빠진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을 전봇대에 천사 디자인을 입히는 ‘천사가 내려앉은 전봇대’ 사업, 동네 상가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상가를 동네 택배보관소로 활용하는 ‘우리동네 택배 보관소’ 사업 등 33개 마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노송동 주민들은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대문 문턱 경사

에 나무판을 덧대는 ‘어르신 대문 문턱 낮추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북2동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이웃의 아동·청소년에게 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해설사가 돼주는 ‘진북이야기술사’와 △재능기부를 통해 배우는 수공예 △반찬 품앗이 △진북공방 △공원 놀이터 주민공동체 관리 △간산천 주변환경 정비 △작은 목욕탕 등 18개 사업을 마을계획으로 확정지었다.

이와 함께,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해 마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올 한해 마을계획 실행에 옮긴 완산동과 인후2동 주민들의 사례도 발표했다. 이들 2개 동 주민들은 △북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세대 집수리 지원 △초등학교 교통신호 강화와 위한 열로우카펫 설치 △마을신문 제작 △재능기부 음악회 △건지산 등산로 입구 정비 및 화단조성 등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마을사업을 각각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사업계획 및 실행에 대한 공모와 전주시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획수립 등으로 노송동과 진북동 마을계획추진단 등 2개 동을, 계획실행 등으로 완산동과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 등 2개 동을 각각 선정했으며, 4개 동 주민들에게는 총 72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됐다.

김기영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전주시와 원도심동 주민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통해 주민주도의 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오롯이 담긴 마을계획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군산해경, 지역 구조본부 꾸린다

### 4개부 6개 반 가동... 훈련 정례화 하기로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사고에 대비한 종합적 상황에 대응할 구조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18일 군산해경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에서 현장 지원과 함께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구조본부를 꾸리고 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구조본부는 해양경찰서장이 본부장으로 구조상황을 지휘하고 상황대응반, 행정지원반, 보급지원반, 오염·방제반 등 총 4개부 6개 반이 가동하면서 종합적인 사고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여객선과 낚시어선, 유람선 등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선박의 경우 승선 인원과 구조 인원 혼선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

침이다.

또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수용 능력 파악과 유기적 지원 등도 체계적으로 갖춰진다.

지역 구조본부 운영으로 반별 임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지휘보고 체계도 간소화시켜 일상불란한 상황대응이 될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훈련 상황을 미리 알리지 않고 신고접수부터 비상소집, 구조세력 급파, 구조본부 운영까지 테마별 훈련을 지속해서 펼치고 이를 평가·분석해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청사 내 지역 구조본부 운영에 관한 별도의 상황실을 만들고 통신장비와 상황 모니터 등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김필곤 기자

# 전주시, ‘문 열고 난방 영업’ 실태점검·방지 사전 홍보

전주시가 연일 지속되는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을 열어둔 채 난방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지역 상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 열고 난방 영업’ 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전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그린리더) 등과 점검반을 구성, 문 열고 난방 영업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미 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한기간 내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고를 시작으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난방 영업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할 때보다 2배의 전력이 소비된다”며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난방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재난발생시 시민 생명 보호 상호협력망 구축  
전주시와 전주·완주 건설기계협의회는 18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병희 협의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폭설과 폭우 등 재난발생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협력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대응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실종 31일째 고준희양 수색범위·인력 확대

### 경찰, 전주시 아중호수·기린봉·우아동 일대 수색... 아중저수지 수중수색 진행

경찰이 실종 31일째인 고준희양 수색작업에 수색범위 및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경찰과 소방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수색대는 전주시 아중호수, 기린봉, 우아동 일대를 수색했다.

또한 이날 오전 고양이 살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아중저수지에서 보트 2대와 수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수중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째 고양이 살던 주택 인근과 기린봉 자리를 수색

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방과 합동으로 아중저수지 수중과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덕진 호성파출소, 무단횡단 예방 총력

전주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는 18일 관내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단횡단 보행자 상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도로폭이 넓고 과속차량이 많은 동부대로 차량등록사무소부터 호성골다리 사이에 현수막을 거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동부대로와 인접해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무단횡단 금지 홍보방송과 홍보물 부착 등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병행했다.

윤혜성 호성파출소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 선진 문화의식으로 한걸음씩 변화하길 희망하며 앞으로 도 총력을 다해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 동료 재소자 성추행한 40대 강간미수범 실행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성추행한 40대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행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경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수감자 B(65)씨가 잠든 사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2015년에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행선고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성민 기자

# 술취해 경찰 폭행한 4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40분경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술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뒤통수를 때

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술집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